

70 돌기념 사업 통신



2026년 4월



朝鮮大學校寄宿舎建設委員會事務局
〒187-8560
東京都小平市小川町 1-700
TEL 042-341-1331
FAX 042-344-1300
E-mail: rjjikai@korea-u.ac.jp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뜨거운 결실 기숙사 2호관 개수준공식 진행 창립 70 돌기념사업실행위원회 제 3차회의도



Photo by Chon hyonchol

4월 10일에 《조선대학교 기숙사 2호관 개수준공식》이 진행되었다.

준공식에는 총련중앙 허종만의장동지가 박구호제1부의장과 총련 각급기관 책임일군들, 한동성학장, 리청민리사장, 리영일동창회회장을 비롯한 실행위원들, 교직원학생대표들과 학부모들 약 150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리청민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사에서 학생기숙사의 신개축사업은 전료제인 우리 대학이 지진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학습과 생활의 기반을 닦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설계과정에서는 교직원들과 학생대표들의 의견교환모임을 여러번 조직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대적이며 교육적효과가 높고 생활에 합리적인 설계도안을 완성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다.

원래 2호관은 가운데 랑하를 끼고 침대방과 공부방으로 나뉘어져있는 구조였으나 침대방을 호실로 꾸리고 공부방의 잡벽을 철거함으로써 건물의 경량화를 실현하는 한편,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넓은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공간에 현대미를 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내진을 위한 경량화를 위하여 2층부터 3층까지 천장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이른바 《후끼누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내진벽에 의해 막

히는 채광을 확보하고 공기순환도 잘 되도록 배려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샤워실과 빨래실을 층마다 설치하여 언제든지 목욕과 빨래를 할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에서 필요에 따라 더운 물을 쓸수 있게 하였다.

공유공간의 바닥에는 주단을 깔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밤중에 로봇청소기가 가동되도록 하였다.

리청민공동위원장은 또한 인사에서 생의 마지막순간에 거액을 희사하시여 모금사업을 안받침

한 전세대 애국가, 모금운동에 앞장선 조청세대 를 비롯한 졸업생들이 전동포적인 미래사랑정신 으로 모금목표달성으로 जु달음치고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70 년의 자부심에 토대하여 100 년을 향한 자신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의 크 나큰 자람이며 재일동포들의 귀중한 재산이고 세계에 유일무이한 우리 대학을 권위있는 명문 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허종만의장동지를 모시고 학생대표를 포함한 7 명의 대표들이 준공테프를 끊었다.



인사를 하는 리청민리사장



테프를 끊는 허종만의장동지와 대표들



약 150 명이 참가



기쁨에 넘쳐 환호를 올리는 학생참가자들



만족스러워하는 어머니실행위원들



현대적인 미관으로 변모한 모습



공동구역에 설치된 다목적회의실



언제든지 리용할수 있는 샤워실



랑하와 공부방을 연결한 공유공간



Photo by Chon hyonchol

**70 돌기념사업 실행위원회 제 3 차회의
모금목표의 85% 달성
모금운동을 9 월말까지 연장**



준공식에 이어 조선대학교창립 70돛기년 사업 실행위원회 제 3 차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대학교 한동성 학장, 조선대학교창립 70돛기년사업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인 리청민리사장과 리영일조대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 약 50 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 앞서 참가자들은 조대의 강화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생의 마지막 시기에 70돛기년사업을 위하여 큰 보탬을 주어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크나큰 힘, 용기를 안겨준 상공연합회 고 정동선고문을 추모하고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갈 결심을 담아 묵상하였다.

회의에서는 리영일공동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송명남사무국장이 70돛기년사업 정형 보고를 하였다.

이어 각 담당자들이 제의한 ▼기숙사건설 모금기간의 조절, ▼1, 3 호관 설계, ▼70돛기년행사의 3 가지 안건들을 토의하고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정형보고와 회의결정에 따르면 모금액수

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확고한 전망이 열렸으나 최근년간 건축비용이 급등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모금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 그 기간을 올해 9 월말까지 연장하게 된다.

또한 1, 3 호관건설을 올해 12 월에 착공하여 2027 년 12 월에 완공하며 2028 년 4 월부터 리용할수 있게 한다.

대학에서는 년말까지 대학창립 70돛기년축 기간으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들을 연거퍼 진행한다. 11 월 15 일에 기본행사인 조대창립 70돛기년대축제를 개최하고 6 월 6 일 체육예술행사, 7 월 4 일 민족교육권학술토론회, 9 월 26 일 고다이らし민을 위한 《오픈 캠퍼스》, 12 월 16 일 정기연주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대리사회, 동창회대표들의 조국방문도 9 월말에 조직할 계획이다.

회의를 결속하며 리청민공동위원장은 《우리는 걸음을 멈출수 없다. 우여곡절은 있을 것이지만 학부모, 학생, 동포들과 약속한대로 꼭 해결해나가야 한다.》 고 하면서 70돛기를 돌파한 기세로 100돛기를 향한 첫걸음을 잘 뻐것을 호소하였다.



새로 건설하는 기숙사모형



인사를 하는 리영일공동위원장



Photo by Chon hyonchol

정형보고를 하는 송명남실행위원회사무국장(신)



새로 건설하는 도안을 설명하는 설계사



행사계획을 해설하는 송수일학부장



Photo by Chon hyonchol

회의맺음을 하는 리청민공동위원장



Photo by Chon hyonchol

축배선창을 하는 한동성학장



Photo by Chon hyonchol



Photo by Chon hyonchol

